

이건희 전 회장 항소심도 집유

조세 포탈 혐의만 인정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조증웅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0일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 원을 선고했다.

이 학수 전 부회장에게는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김 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사회봉사 320시간을 부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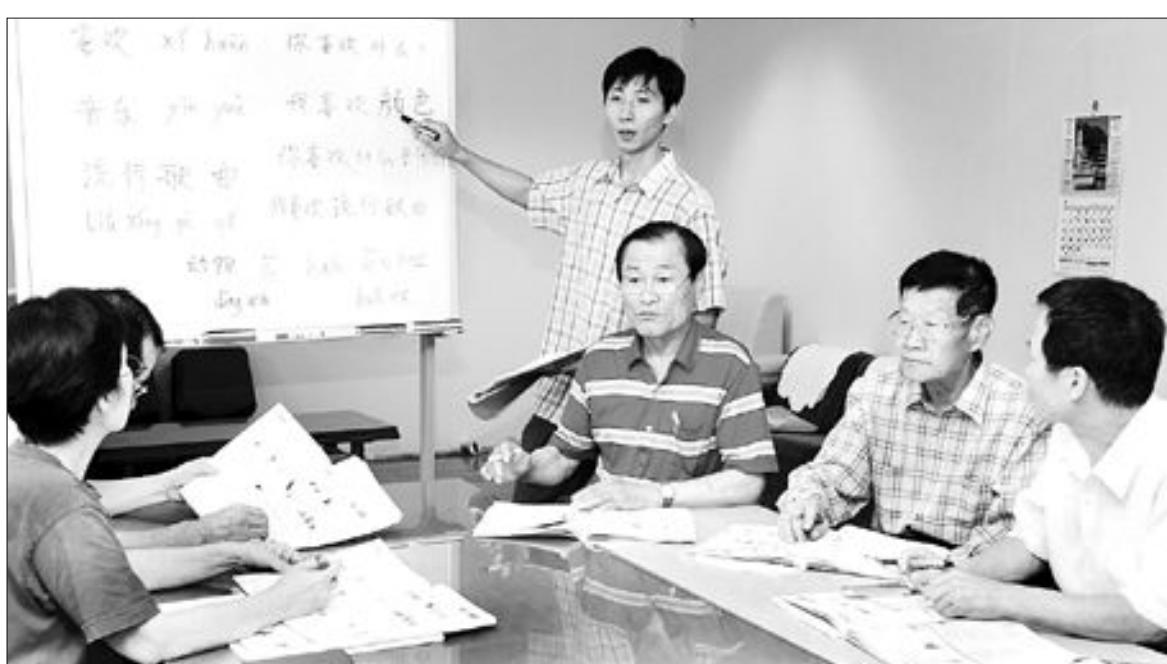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권리증여 혐의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CB와 BW를 저가발행할 때 적

정가로 발행해 그에 따른 자금이 들어오게 할 의무는 없다'며 '경영진이 적정가로 발행했다면 저가로 발행했을 때보다 유입 자금이 많을 텐데 회사에 그 차익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이 전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등 삼성 핵심원 8명은 1996년 에버랜드 CB를 이용해 남에게 편법증여하고 1999년 삼성SDS BW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와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1천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하고 삼성SDS 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하는 한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 100억원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권리증여 혐의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CB와 BW를 저가발행할 때 적



지난 9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 우산종합복지관에서 중국 출신 결혼 이민자 노해옹 강사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강의를 하고 있다.

/위저기자:jrwi@kwangju.co.kr

中·日 등 결혼 이민자 외국어 강사

주민 가르치며 '문화 소통'

■ 광주 우산종합복지관 '외국어 어울림 교실'

국제결혼·이민자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강의를 하는 등 지역 봉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8월부터 매주 월·화·수·목요일 4일 동안 광주시 북구 우산동 우산종합복지관 2층에서 열리고 있는 '외국어 어울림 교실'.

중국 출신 노해옹(39·광주시 북구 문흥동)씨 등 중국·일본·필리핀인 다문화 가정 결혼 이민자 4명

(남자 1명·여자 3명)이 외국어 교실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노 강사는 맡고 있는 수강생은 모두 7명으로 연령대는 60~70대이다.

이 때문에 처음엔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의사소통 문제와 세대차이 등 때문이었다. 하지만, 배움의 열정만큼은 남달랐기에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 대하듯 살갑게 대

했다. 강의도 하나하나 꼼꼼히 청겼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현재는 수강생들이 집에서 음식장만을 해서 갖다 줄 만큼 친해졌다.

수강생 김정리(여·60)씨는 "수강 신청 후 나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노 강사가 이런 부분까지 모두 감싸 안은 채 꼼꼼하게 청겨줬다"며 "한국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원어민 강사에게 외국어를 직접 배우니 재미도 실력도 두 배"라고 흐뭇해 했다.

노 강사는 "수강생 모두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지만 배움의 열정만큼은 10~20대 못지 않다. 중국어 실력이 나날이 좋아지는 모습을 볼 때면 매우 기쁘다"며 "미력하나마 지역민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나에겐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노 강사는 "수강생 모두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지만 배움의 열정만큼은 10~20대 못지 않다. 중국어 실력이 나날이 좋아지는 모습을 볼 때면 매우 기쁘다"며 "미력하나마 지역민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나에겐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각에 모인 이들은 자국어 강의를 통해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즐겁게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

노씨 등 강사 4명은 전직 교사와 무역회사 종업 출신으로 토익과 토플 등 영어 실력도 수준급인 재원들.

수강자는 광주시 북구청 관내 저소득층 자녀 또는 일반인들로, 현재 50명이 강의를 듣고 있다. 강사들 중 노씨가 유독 수강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노 강사는 맡고 있는 수강생은 모두 7명으로 연령대는 60~70대이다.

이 때문에 처음엔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의사소통 문제와 세대차이 등 때문이었다. 하지만, 배움의 열정만큼은 남달랐기에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 대하듯 살갑게 대

했다. 강의도 하나하나 꼼꼼히 청겼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현재는 수강생들이 집에서 음식장만을 해서 갖다 줄 만큼 친해졌다.

수강생 김정리(여·60)씨는 "수

강 신청 후 나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노 강사가 이런 부분까지 모두 감싸 안은 채 꼼꼼하게 청겨졌다"며 "한국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원어민 강사에게 외국어를 직접 배우니 재미도 실력도 두 배"라고 흐뭇해 했다.

노 강사는 "수강생 모두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지만 배움의 열정만큼은 10~20대 못지 않다. 중국어 실력이 나날이 좋아지는 모습을 볼 때면 매우 기쁘다"며 "미력하나마 지역민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나에겐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은행 입사 경쟁률 127 대 1

광주은행의 올해 정규직원 채용 경쟁률이 127대 1을 기록했다.

10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열흘간 정규직원 채용에 대한 원서를 접수한 결과 3천184명이

지원했다. 광주은행은 이 가운데 25명 안팎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 경쟁률은 127대 1에 달한다.

이같은 경쟁률은 지난해(105대

1)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석

사 출신 등 고학력자와 서울 등 외지에서의 지원도 급증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52%(1천658명)를 차지했고, 여성은 48%(1천526명)로 파악됐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오는 20일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야간집회 금지 위헌 심판 여부 지켜보자"

법원, 촛불 집회 구속자 2명 석방

법원이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10일 촛불집회로 구속된 피고인 2명을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이날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석운(53)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또 인터넷 다음의 토론장 '아고리'에서 '권태로운 창'이라는 아이디(ID)로 누리꾼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도(48)씨

/연합뉴스

강진만 새조개 서식 첫 확인

을 연말 수확 가능

강진만에서 고소득 조개인 새조개의 서식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10일 국립수산과학원 강진수산사무소 등에 따르면 최근 신전면 사초리 앞 강진만에 새조개가 대량 서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여수 가막만과 순천만, 고흥 득량만 일부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조개가 강진만에서 서식하고 있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진수산사는 조개 채취용 형광망을 이용, 2곳에서 50여개의 새조개를 채취했는데 올봄에 산란한 중간 이상 크기로 조사됐다.

채취된 새조개는 평균 너비 5.5cm, 절개부 길이 6cm, 무게 44g로 연말이면 수확이 가능하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지원했다. 광주은행은 이 가운데 25명 안팎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 경쟁률은 127대 1에 달한다.

이같은 경쟁률은 지난해(105대

1)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석

사 출신 등 고학력자와 서울 등 외지에서의 지원도 급증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52%(1천658명)를 차지했고, 여성은 48%(1천526명)로 파악됐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오는 20일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수완 롯데쇼핑 옆 최고상권!!

분양 펠리스 타워 임대

수완지구 12,000세대 아파트 입주 시작

*수완지구 최저분양가 3,3m² 당 1,400만원부터

층	면적	계약업종
1층	15평~200평	금은방, 안경, 커피숍, 양국, 제과점 등 판매시설
2층	200평	페리식당, 병원, 단지주점, 노래방
3~6층	200평	병, 의원, 학원, 독서실등
7층	200평	휘트니스 클럽
8층	50평	스카이 라운지

*면적 15평 부터 분할 가능



펠리스 타워 분양사무실 062) 954-0031
분양사무실 010-7723-1033

경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주)옥션코리아

친절상담
문의 062)222-8446
H.010-3666-8446

전화 062)222-8446
H.010-3666-8446

문의 062)